

예술로 마음 잇고, 소리로 세상 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개소식... 장애 인식 개선 등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공식 출범했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에서 오케스트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강동화 의원, 단원 및 보호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단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여간 연습한 곡들을 직접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성인 장애인들로 △바이올린 3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도내 학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인식 개선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창단 공연은 12월 중 가질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이께도 감동과 울림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줄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화예술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의 장애 인식 고 강조했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장은성 기자

일제강점기 '김제역대합소' 사진 최초 발견

희귀 사진 업서 공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9일 최근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록물 공개 구입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김제역 대합소의 전경을 담은 희귀 사진 업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근대 김제 지역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였던 김제역의 모습과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시각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해당 사진은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경으로 추정되며 '철도대합소(鐵道待合所)'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또한 당시 포드 T형 자동차, 인력거, 자전거, 한복을 입은 인물들과 일본식 삼점 건물 등이 함께 포착되어 있어 근대 문물이 혼재된 김제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사진 자료는 단순한 가치역의 풍경을 넘어서, 김제가 쌀과 농산물 집산지로서 조선총독부의 수탈 경제 체계 속에서 어떤 교통·상업적 위치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생생한 증거로 평가된다.

특히 철도 및 대합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김제 시민들의 삶과 거리 풍경까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문화사·생활사 자료로서도 매우 높은 연구 가치를 지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의 발견은 김제의 근대 교통사와 철도문화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해당 기록물을 하반기에 개최하는 기록물 전시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 웰니스 한방 투어 운영

익산시, 전북권 문화관광재단·여행업계 대상 1박 2일 관광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한방 힐링 자원을 결합한 여행을 선보이며 지역 고유의 치유형 체류 관광 콘텐츠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세만)과 함께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 웰니스 한방 투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웰니스 한방 프로그램'으로 △역사 한방 △자연·치유 한방 △전통문화 한방 △건강 한방이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역사문화자원과 한방의학, 향토식문화 체험이 융합된 체험형 관광코스로, 익산 고유의 문화 정체성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여행은 오후 공개나루 금강 유람선 체험으로 시작해 입성리고분 전시관에서 백제 유적을 관람하고, 익산 특산물인 참마와 서동전설을 활용한 마 약방 체험으로 이어진다.

이어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황수연 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4남매 시골원장에서

발효식품을 직접 만들고, 왕궁리 유적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천연염색 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지역에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에서 간강 식사를 함께 나누고, 금마에 위치한 익산 백제마을 내 한옥 숙소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2일 차에는 익산의 대표 의료관광 자원인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불균형 검사, 면역력 측정 등 한방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건강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1회(6월 20~21일)는 전북권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2회(6월 27~28일)는 여행사 및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체험 후 익산 웰니스 관광지를 알리는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관광자원개발팀(063-918-99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세만 대표이사는 "문화와 관광,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행을 통해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참여자들이 지역 관광 홍보의 첨병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문화재단,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 운영

우리 지역 시각예술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 가 문을 연다.

19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작품을 판매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로 예술가 창작 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9명의 시각예술 작가가 참여한다.

릴레이의 첫 문은 회화작가 '최은우'가 연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동문거리 '공유화음실'에서 진행된다.

최 작가는 "전북청년 2023 선정작가(전북

도립미술관)', '2024년 대구국제아트페어(대구엑스포)', '2024년 탄소예술기획전(전주)' 등 국내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열린 '2025 JEC World'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최 작가는 블랙홀의 경계이자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계 지점과 그 너머의 세계를 평면작업으로 구현한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깊은 사유와 미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적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작가별 2주씩 개인전으로 운영되는 <동문그림가게>는 폭염기에 잠시 쉬 후 8월 25일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생애사 글쓰기 '나의 삶, 한 권의 책' 참여자 모집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군민과 함께 삶을 되짚고 글로 엮어보는 시간 2025 생애사 글쓰기 '나의 삶, 한 권의 책' (이하 생애사 글쓰기)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총 12회에 걸쳐 부안 석정문화관에서 진행된다.

생애사 글쓰기는 삶의 단편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되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자기 이해와 정서적 치유의 여정이자 예술로 풀어내는 자서전 쓰기가 할 수 있다.

참여자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며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의는 글마을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가 맡아 문학적 깊이와 감성을 더한 지도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기만의 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재단 지역문화팀(063-584-6212)으로 전화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원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유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